

재수생 비율 늘어 정시모집 최대 변수

올 수능 60만5988명 지원...광주·전남은 3만9천여명 2만5199명 줄어 6년래 최대 감소...재수생 전체 22%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지원한 고교 졸업생(재수생) 비율이 전년도에 견줘 늘어났다.

재수생이 재학생에 비해 수능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경향을 감안하면 올 '정시모집'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2외국어 중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도 제2외국어 응시자(9만4359명) 중 69.0%(6만5153명)에 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2017학년도 수능(11월 17일)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년도(63만1187명)보다 2만5199명(4.0%) 감소한 60만598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소 폭은 2012학년도 시험부터 지원자 감소세가 시작된 이래가

장 큰 규모라는 게 교육부 분석이다.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재학생은 45만9342명으로, 작년 48만254명보다 2만2712명 감소했다. 졸업생은 13만5120명으로 전년도 13만6090명보다 줄었다. 하지만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전년도(21.5%)보다 0.8%포인트 늘어난 22.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비슷하다. 광주 응시자는 2만744명으로, 작년 2만1477명보다 733명 감소했고 전남에서는 1만8196명이 지원, 전년도(1만8768명)보다 572명 줄었다.

반면, 졸업생 응시자 비율의 경우 광주는 작년 12.4%(3266명)에서 올 해 15.2%(3280명)로 증가했고 전남도 17.33%

으로 작년(1719명·9.2%)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수능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영역 모두에서 재수생 평균 점수가 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재수생들의 수능 성적은 재학생보다 좋았다는 점에서 수능시험 비중이 높은 정시모집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역별로는 2017학년도부터 필수 영역으로 지정된 한국사에 응시생이 100% 지원했으며, 국어 60만4070명(광주 2만730명·전남 1만8160명), 수학 56만9808명(광주 2만207명·전남 1만7553명), 영어 59만9170명(광주 2만686명·전남 1만8090명) 등이다.

인문계 취업난, 대학 프라임사업으로 인한 인문계 축소 등으로 인한 이공계 선호 현상도 뚜렷했다.

문과 지원자가 선택하는 사회탐구 응시

자(32만2834명·54.6%)는 전년도(35만7240명·58.3%)에 비해 감소한 반면, 과학탐구 응시자는 26만11명(44.0%)으로 작년(24만6545명·40.2%)보다 늘었다. 광주·사·탐 응시자는 1만64명으로 작년(1만1161명)보다 늘었지만 과·탐 응시자는 9969명으로 전년도 9640명보다 늘어났다. 전남 사·탐 응시자도 9626명(2016년)에서 8812명으로 감소한 반면, 작년 8154명이던 과·탐 응시자는 올해 8502명으로 증가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9만4359명 중 가장 많은 지원자가 선택한 과목은 '아랍어 I'으로 69%인 6만5153명이 선택했다. 이는 작년 51.6%보다 17.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광주에서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3115명) 중 2259명이 선택해 가장 많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부, 학생부 실태조사

광주시교육감 공식 사과

교육부가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부당 정정 사태와 관련, 전 수조사를 거쳐 학생부 수정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학교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장휘국 교육감이 학생부 파문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장·단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모 사립학교 교장·교사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 학생들의 학생부 내용을 부당하게 정정한 것과 관련, 나이스 점검을 통해 학생부 수정이 과도하게 여러 차례 이뤄졌거나, 권한 부여에 이상한 점이 있는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학생부 기재 실태를 조사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로, 광주·전남 교육청도 관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 휘국 교육감은 1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학교 성적 조작 및 학생부 사태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하고 담당교사·교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 정정 및 권한을 갖지 않은 관련자들의 접속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2회 이뤄지던 교장·교감들에 대한 학생부 관련 연수를 4회로 늘리는 한편, 학생부 실무 지원단도 운영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문대학 호남권 엑스포’ 홍보부스 체험 지난 9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전문대학 호남권 엑스포’를 찾은 수험생과 학생들이 대학 홍보부스에서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희기자 choi@kwangju.co.kr

희귀종 ‘맹구알 버섯’ 담양서 또 발견

축구공 크기...2년전 같은 장소

축구공 크기의 맹구알버섯이 2년만에 담양에서 또 다시 발견돼 화제다.

담양군 대덕면으로 귀촌한 나승렬 광주시학생교육원장은 자신의 텃밭에서 축구공보다 큰 맹구알버섯(사진)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버섯은 지름 약 23cm로,

지난 2014년 8월 자신의 텃밭에서 처음 발견한 것과 비슷한 크기다. 한 장소에서 같은 크기의 맹구알버섯이 발견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계룡산에서 발견된 아이 주먹 크기가 전부였다.

2년전 발견 당시 나 원장은 1개체는 연구를 위해 완도수목원에 기증했고 1개체는 관상용으로 그 자리에 놔뒀다. 이번에 발견된 버섯은 당시 관상용으로 놔뒀던



포자가 퍼져 생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맹구알버섯은 주로 가을철 응지에서 발육하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세계적 희귀종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3 해질 18:44
달출몰 15:30 달지름 01:14

한낮 햇빛 따가워요

남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그치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림	21/29
목포	흐림	21/29
여수	비온뒤 맑음	21/25
나주	흐림	20/29
완도	비온뒤 맑음	20/27
구례	비온뒤 맑음	19/28
강진	비온뒤 맑음	20/27
해남	비온뒤 맑음	20/28
장성	흐림	19/28

항목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항목	밀물	썰물
목포	09:35 / 22:45	04:04 / 15:37
여수	05:18 / 18:30	11:15 / 00:00

날짜	날씨	기온
13(화)	흐림	19/30
14(수)	흐림	20/30
15(목)	흐림	19/30
16(금)	흐림	18/26
17(토)	흐림	17/27
18(일)	흐림	17/27
19(월)	흐림	17/27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높음
- 미세먼지: 보통

무등산 단풍 11월 7일 절정

지리산 10월 25일·내장산 11월 9일...평년보다 4일 늦어

올해 무등산은 10월24일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 11월7일께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첫 단풍과 절정 시기 모두 평년에 비해 4일 정도 늦은 것으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단풍 절정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풍은 늦게 들지만 올해는 일교차가 큰 날이 많아 단풍 색깔은 유난히 고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기상청도 제공업체인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남도의 첫 단풍은 지리산에서 10월 12일 물들기 시작해 22일 내장산, 24일 무등산으로 점차 내려오겠다. 이는 늦더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3~5일 정도 늦은 것이다.

올해는 단풍이 물드는 데 영향을 주는 9월 중순부터 10월 사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도 3~4일가량 늦을 전망이다. 지리산과 무등산은 평년보다 4일 늦은 10월25일과 11월7일, 내장산은 3일 늦은 11월9일로 예상된다.

무등산의 최근 10년(2006~2015년) 동안 단풍 절정 시기는 11월6일로, 1990년대(1991~2000년) 11월1일보다 5일 정도 늦어졌다. 지리산(10월23일)과 내장산(11월5일)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일과 3일씩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마약류 관리 위한 의료기관 9곳 적발

광주시는 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합동점검을 벌여 7개 의료기관에 경고를, 2곳에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의료인의 마취제 투약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자치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지도점검은 2개조로 나뉘어 민원 또는 사고가 발생했던 취약 의료기관 48개소에 대해 마약류 적정 보관여부 등 7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점검부 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곳, 항정신성 의약품 저장기준 등을 위반한 7개 의료기관에는 경고 조치했고, 2곳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현희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성황리 분양중

SH BUILDING

- 남구 빙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 심면이 확보해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중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할터의 분양가 **고객가치**

문의 062)676-4006 / 010-5681-4015

빛가람로 전면부에 위치

비전타워 7~8층

파격 분양 및 임대

- 나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변이라 광고효과 최고!
- 지상 11층, 지하 3층까지의 넉넉한 주차공간, 각종 병·의원 및 업무시설 입점
- 입점 내과 성업중이며, 피부과 치과등 11월 오픈예정!
- 병원용 침상이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 완비

- 7층 전용면적 453평 / 8층 전용면적 453평 (전체 면적도 가능 / 1칸씩 분양 및 임대도 가능)

권장업종

- 넓은 객실을 요하는 한방병원
- 이동 전문병원
- 업무용 사무실

분양가격 및 계약기간, 임차가격은 협의가능하며 매수인과 임차인 의견 적극수렴 합니다.

비전공인중개사 박주연 010-4141-5300 / 061)335-0002